

전북 새만금 크루즈 관광시대 신호탄

신항만 크루즈 연구용역 착수 로드맵 마련·선사 유치 추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글로벌 크루즈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도는 1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크루즈 유치를 위한 종합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4개 시군, 새만금개발청, 군산

지방해양수산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관계기관 50여 명이 참석해 연구용역 추진방향과 전북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 신항만을 기점으로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점검,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기획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전북도는 이를 토대로 새만금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간 전북자치도는 크루즈산업 기반

을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새만금청, 군산해수청, 세관·출입국·검역기관 등 8개 기관과 함께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담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어 올해 2월에는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함께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과 추진과제를 논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왔다.

전북자치도는 크루즈 유치 기반 강화와 실무 협력 확대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부산항 팬스타 드림호(2.2만 톤급) 선상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참

가한다. 국무조정실, 새만금청, 한국해양관광학회, 한국크루즈포럼, 여행사,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새만금 크루즈 정책 동향과 규제 개선 과제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이날 참여한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크루즈 유치 준비상황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내년 말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은 대한민국 대표 크루즈 기항지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전북만의 관광자원과 콘텐츠를 연계해 크루즈 관광 중심으로 도약토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李대통령 3대 특별법 검사 지명

내란특검 조은석 김건희특검 민중기 채상병특검 이명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를, 채상병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를 수용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을 지내다가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검

찰을 떠났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윤석열 정권과 대립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이례적으로 장장 3년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명현 채상병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특검별로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영목기자



육군 훈련부사관 35명 탄생

육군부사관학교는 13일 학교 본청강당에서 김경중(소장) 학교장 주관으로 신임 훈련부사관 이한수 상사 등 35명에 대한 ‘25-1기 훈련부사관 1형 임명식’을 개최했다. 신임 훈련부사관들이 단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육군부사관학교>

전북자치도 “기업과 손잡고 저출생 해법 찾는다”

저출생 공동대응 캠페인 (주)알에프세미 방문 첫 간담회 ‘10시 출근제’ 지원 확대 검토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해법 위해 완주군 봉동산단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기업 (주)알에프세미를 방문해 ‘저출생 공동대응 릴레이 캠페인’ 첫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연말까지 도내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 15곳을 차례로 방문해 저출생 대응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저출생 릴레이 캠페인은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상생형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자리에는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반재용 알에프세미 대표, 육명진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장,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제도 개선 의견을 나눴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알에프세미는 남성 육아휴직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가

족친화 직장교육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으로, 임직원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건의가 이어졌다.

알에프세미 관계자는 “직원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며 “남아 있는 동료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훨씬 실효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천영평 실장은 “이런 생생한 현

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적극 전달해 제도 개선과 예산 안정화를 요청하겠다”며 “현재 도에서 시행 중인 ‘초등부모 10시 출근제’의 지원 대상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개 분야, 70개 과제로 구성된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수립한 이후,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과 정책 기반 구축에 힘써왔다.

알에프세미는 다음 릴레이 방문지로 고창군의 참바다 영어조합법인을 지목했다.

/김영태 기자

민주당 원내대표 3선 김병기 선출

“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천명계 3선인 김병기(64·서울 동작갑)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간 협치는 물론 야당과도 협치를 통한 국회 정상화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영교(60·서울 중랑갑) 의원을 꺾고 집권당의 원내대표 자리를 차지했다.

김 원내대표는 26년간 국가정보원에 근무해 ‘정보통’이며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동작갑에서 국회에 입성했고,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 단호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정견을 발표했다.

/정재근 기자

이원택 “벼 재배면적 줄여도 소득 보전”

소득감소보전법 대표 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벼 등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 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벼 재배면적을 일정 비율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하고,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할당할 후 의무불이행 농가들에 대해 기본직불금 지급 및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통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농작물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며 ▲ 조정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감소분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순창군의회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

| 의정방침 |

소통하는 열린 의정
변화하는 혁신 의정
창의적인 선진 의정
발로 뛰는 현장 의정

의회 중계석

예비비 부적절 사용 지적…보조금반납 문제 질타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제41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3일 상임위 회의를 개최해 소관 부서인 도 기업유치지원실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이월·불용 등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며,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와 반복적인 집행 오류가 없는지 면밀히 살폈다.

위원회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사전에 계획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일부 집행한 것은 잘못됐다”며 “예산 편성 원칙을 무시한 부적절한 집행으로, 재발 방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당초 편성하지 말아야 할 예산이 행정 착오로 잘못 포함돼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은 명백한 실수”라며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고, 기업인들과의 접촉 결과 도에 대한 신뢰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대로면 향후 전북 기업 행사에 참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도내 시군에 교부된 보조금 가운데 집행잔액이 남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어느 시군에서 시군비 매칭을 하지 못해 가장 많은 금액을 반납했는지, 또 어떤 사업

에서 주로 반납이 발생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시군에 대한 제재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시 은행마다 대출 이율이 달라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사 기간도 길어 적시에 자금을 지원받기 어렵다”며 “이율 통일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조성된 기금이 실제 현장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불용·이월·반납 문제 지적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지난 13일 농생명축산산업국, 환경산업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이날 결산심사를 통해 사업별 집행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용·이월·반납 등의 반복적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농업과 축산이 하나의 조직에 통합돼 있는 현재 구조에 대해 전문성과 효율성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직 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공모사업 대응 시 도의회와의 협의와 도의원 역할 강화, 농업 예산 확대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권오안 부위원장(완주2)은 농어촌 퇴직연금제 도입과 국비 미송금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 정책 변화에 맞춰 도정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중앙과의 연계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이월 최소화와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농업 마이스터대학의 보조금 반납을 지적하며, 반복

되는 예산 잔액 발생은 계획 부족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기후위기대응기금 확대, 농민 대상 활용 강화, 밀원수 조성 및 양봉산업 육성 전략 수립도 함께 제안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보조금 반납과 수요조사 미비, 성과지표가 실제와 괴리된 문제를 지적하고 성과관리 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수조차·산림·상수원 관련 반복 집행잔액 문제도 함께 짚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농촌 왕진버스’의 현장 호응도를 바탕으로 추경 예산 확보와 확대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임차 예산의 집행 미흡을 지적하며 더 안전하고 성능 좋은 장비 확보를 요구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부안군 농어촌 처리시설 사업에 도비 매칭이 되지 않은 점과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예산 미집행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집행 간의 실질적 연계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까지의 전 과정에서 도민 체감성과 정책 효과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또 집행부에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실효성 중심의 행정 집행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영태 기자

결산·예비비 지출 심사…목표 달성 자화자찬 행태 강력 질타

도의회 교육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세입 결산액 4조 8,314억 원 △세출 결산액 4조 6,175억 원 △차액 2,139억 원으로, 차액의 내역은 △명사·사고·계속비 이월액 1,766억 원 △각종 보조금 반

납액 2억 원 △순세계잉여금 371억 원이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결산 때마다 수차례 지적했으나 바뀌지 않고 있다”고 도교육청 사업 성과보고서 부실함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어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수치를 다음 해의 목표로 삼거나, 당연히 달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성과 지표로 넣어 놓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 위원장은 “미달성된 지표들

도 문제지만 달성했다고 보고한 내용들도 허술하거나 실질적 의미 없는 지표들이 너무 많다”며 빠른 개선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도교육청이 666억 원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자체수입 재원은 미비하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예산 집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이리초 교실

증축, 섬진강 자연학습장 신축 등 사업들이 한 차례 명시이월을 했음에도 연내 집행되지 않고 다시 사고이월된 이유를 따져 묻고 면밀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 사업들이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인력 충원이라든지 필요한 방법을 강구해 예산 추계를 면밀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태 기자

道,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개소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 예수병원 내에 '전북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개소했다.

개소된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는 도민들에 대한 난임과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는 전북 권역 핵심 기

관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5명의 전문 인력이 1대1 맞춤 상담과 우울증 선별검사, 집단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을 운영해 임신부터 출산 후 양육 초기까지 심리 회복을 돕는다.

특히 난임 시술 전문 의료기관인 예

수병원과 협력해 의료지원과 심리상담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북자치도는 저출생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 치료 등 난임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출산 직후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을 돕고, 양육기에는 △첫만남 이용권 지급 △저소득층 기저

귀·조제분유 지원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출산 문제는 이제 의료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심리·정서적 돌봄까지 포함한 포괄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임신부터 양육까지 전 과정에서 든든하게 함께하는 출산지원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

오광수 민정수석, 李 정부 5일만 첫 낙마

부동산차명 보유·대출 의혹

오광수 민정수석이 지난 13일 부동산 차명 보유 및 차명 대출 의혹으로 물러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광수 수석은 어제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사법계

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 수석은 이대통령이 민주당 내외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했으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에 이어 차명 대출의혹까지 제기되면서고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샀다.

오 수석은 이재명 정부에서 5일만에 물러난 첫 낙마자가 됐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도, 청년유출입 대응 55개 정책 발굴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의 실질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유출입 대응 정책 발굴 간담회’를 지난 12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김승길 대표 특강 ‘청년정책 실행사례와 정책화 과정’으로 시작했다.

김 대표는 청년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실제 경로와 실행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 청년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논의된 분야별 사업은 △일자리 분야에 전북 청년 고용안정 지원사업, 중소기업 연구인력 패키지 지원 등 9개 사업 △주거 분야에 청년매입주택 신

규 공급,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확대 지원 등 8개 사업 △교육 분야에 전북 RISE 참여학생 ‘산업맞춤형 코드 마스터’ 양성 등 6개 사업 △복지·문화 분야에 전북청년 함성패키지 지원 사업 등 22개 사업 △참여·권리 분야에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정책 우대 지원 등 10개 사업이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주체”라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지속 발굴해, 청년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윤준병 의원, 사제총기 테러방지 3법 대표 발의

3D프린팅 제작 불법 총기 대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3D프린팅으로 제작된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 및 테러 등 불법적 사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D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3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산자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해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악용한 사건사고가 영국·미국 등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

을 밝혔다.

실제 지난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살 사건에 이용됐던 총기가 3D프린팅을 활용한 부품들로 제작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기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난 2016년 서울 오폐산터널 사제 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진화하는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공공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안전한 에스컬에이트 이용방법

손잡이를 꼭 잡고

뛰지 말고

안전선 안에서

보호자와 함께

전북 6개사 ‘초격차 스타트업’ 신규 선정

중기부 닥테크 유니콘 육성
모나(주) 등 전북 6개사
최대 6억 사업화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은 지난 13일 올해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이하 초격차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역 스타트업들과 함께 ‘2025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판식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점과제인 ‘초격차 프로젝트’에 전북지역 ㈜모나 등 6개사가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지난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시스템반도체, AI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을 선도하며,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닥테크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선정하고 집중 지원해 글로벌 유니콘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10대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이다.

지난해까지 총 407개사를 선정해 육성했으며, 올해는 일반공모를 통해 13.7:1의 높은 경쟁률을 뚫은 182개사와 기존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을 지원받은 스타트업 중 매출·고용·투자 성과가 뛰어난 스타트업 15개사까지 총 197개가 새롭게 선정됐다.

올해 전북에서는 모나(주)(미래모빌리티 분야), ㈜와파에이아이(AI·빅데이터 분야), ㈜도트(로봇 분야), ㈜오이스텍, ㈜에이스인벤터, ㈜에이티비랩(이상 친환경에너지 분야) 등 총 6개사가 신규로 선정됐다.

초격차 프로젝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스타트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화 자금, 기업수요에 따라 최대 6억 원의 R&D자금 등 총 12억 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대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중기청은 13일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에 선정된 지역 기업들과 현판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전북중기청>

또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등 분야별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 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대기업 등과 협업,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전북중기청 전세희 청장은 “작년까지

이 프로젝트에 선정된 전북지역 스타트업이 2개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개사로 크게 증가했다”며 “전북지역에서도 초격차 닥테크 분야를 선도하는 스타트업이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 예년보다 빠른 장마에 대비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김인중 사장 주재로 ‘장마대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농어촌공사>

농어촌공, 장마철 재해 대비 특별 점검회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지난 12일 예년보다 빠른 장마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농경지 침수와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김사장 주재로 ‘장마대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장마철 재해예방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본사와 지역본부, 사업단의 재해 대응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김인중 사장은 “수해에 대응하는 최고의 방법은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찰을 통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선제적으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사장은 재난상황 비상근무와 보고체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사의 대응이 체계적이고 신속하

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모든 상황에서 인명보호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변 시설물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주문하며 재난 대비 태세를 완벽히 할 것을 당부했다.

공사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3,427개 저수지를 포함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현재 이들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0% 수준으로, 약 12억 톤의 여유 저수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공사는 이달 21일부터 시작되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동안 저수지 저수율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집중호우 예보 시에는 사전 방류를 통해 적정 수위를 유지하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기원, 미생물 교육 통해 친환경농업 구축

도내 농기센터 미생물배양실
담당자 20여명 이론·실습교육

최근 농업·축산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업과 지속가능한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미생물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미생물 제품의 품질관리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따라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지난 13일 도내 시군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실 업무 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미생물 관련 이론과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협력해 추진되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미생물 제품 등록 절차

및 실험법, 미생물의 배양방법과 과정, 종균 관리 요령, 미생물 제품생산 공정실습 및 자체 품질관리 방법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추진됐다.

특히,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미생물배양실의 담당자들이 제품생산과 품질관리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편성되었다.

농업 현장에서는 미생물의 품질과 관리 수준이 농작물 생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됨에 따라 이번 교육은 미생물배양실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 제품생산과 공급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미생물 제품의 등록 절차 및 시험법 교육을 통해 법적 기준과 절차에 맞는 제품생산·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전북농기원은 13일 도내시군농기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미생물 이론·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전북농기원>

품질 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 공정 실습과 품질관리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과 관리 요령을 익힐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윤대순 기

술보급과장은 “교육을 통해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배양실 운영 능력과 품질관리 수준이 향상되면, 결과적으로 농업 현장에 더욱 신뢰성 있는 친환경 미생물 제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전북지식재산센터 IP창업존 성료 “아이디어를 특허로”

52기 창업 특허교육 수료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지부장 윤정호)는 지난 13일 전북지식재산센터 IP창업존 제52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교육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창업 및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예비 창업자 및 당해연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기수의 교육생들은 IP창업을 위한 특허 연구,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아이템의 강한 특허권 확보 등 나만의 창업 아이템을 특허로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실무 교육을 이수했다.

또 수료 후에도 창업 컨설팅 및 아이디어 권리화, 아이디어 행사화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윤정호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창업자들이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창업자들이 사



업 아이템을 특허로서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기원, 농촌체험농장 운영자 응급처치 교육

AED 사용법 등 실전역량강화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교육장에서 도내 농촌교육농장 및 체험농장 운영자 31명을 대상으로 ‘2025년 농촌체험농장 운영자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체험학습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운영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는 체험 현장에서 운영자의 응급 대응 능력은

학생과 방문객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교육은 대한적십자사 전문 강사진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진행되었으며, △응급처치의 필요성과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실제 대응 요령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번 교육은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신청 시 필수 이수 요건으로, 향후 농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험농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제고되어, 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권택 과장은 “앞으로도 농촌자원이 교육적으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콘텐츠 보급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 후원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12일 익산 남성고등학교에서 두기 김관훈ceo를 초청해 'JB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은행>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익산 남성고 인문학강좌

두기떡볶이 김관훈 대표 강연
창업스토리·인생철학 전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 후원으로 운영되는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규)은 지난 12일 익산 남성고등학교에서 '2025 JB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

이 날 강연자로 나선 두기 떡볶이 김관훈 대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어본 적이 있나요?”는 주제로 고등학생 230명에게 창업 스토리와 삶의 철학을 진솔하게 전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관훈 대표는 꿈과 목표 없이 방황하던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내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떡볶이 동호회 카페를 직접 만들고 활동한 경험과 브랜

드를 성장시키기까지의 과정 등 성장 스토리를 들려줬다.

또 “청소년 시기에는 단순한 진로 선택을 넘어 스스로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훈 대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용기를 내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0년 단위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비교적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JB인문학 강좌'는 도내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전북은행의 대표적인 문화 활동 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97회에 걸쳐 2만 9,41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와 반찬봉사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회장 김경리)는 지난 12일 정읍에서 전북특별자치도보조금지원사업으로 이웃사랑 실천 ‘이심점심 반찬봉사’를 실시했다.

전북농협 임직원과 정읍농협 고향주부모임회원 50여 명의 정성을 모아 김치, 고기반찬, 밀반찬 등을 직접 만들고 포장해 정읍관내 어르신 100여 명에게 직접 나눠드렸다.

이번 ‘이심점심 반찬봉사’ 사업은 전

북특자도보조금 지원을 받아 이뤄진 봉사활동으로 고향주부모임의 손길을 거쳐 지역민에게 더욱 따뜻한 나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리 회장은 “바쁜 영농철에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밀반찬 나눔을 함께해주시고 고향주부모임회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우리 문화 알림 활동’…세계와 교류

글로벌브릿지캠프2차사전교육 매듭장·침선장 체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4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2025. 글로벌 브릿지 캠프(Global Bridge Camp)’ 2차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2차 사전교육은 학생들이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준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북교육청은 2025년 학생 해외연수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문화 알림 활동’을 핵심 과제로 삼고, 연수 대

상 학생들의 단순한 참여를 넘어 우리 문화를 기확하고 직접 전달하는 주도적 활동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교육은 국립무형유산원의 협조로 국가무형유산 매듭장, 침선장 전승자로부터 전통공예 교육을 받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진행될 글로벌 브릿지 캠프 현지 연수 중 현지 학생들과 함께하는 공동수업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8월 6일 시애틀 한국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여름 캠프의 한국문화 체험 부스에도 학생들이 보조교사로 참여하게 된다.

앞서 지난 5월 정읍교육지원청은 고등학교 1학년 50명을 대상으로 프랑스·영국에서의 진로 탐색 해외문화탐방 연수 중 현지 고등학교에서 우리 문화 알림 부스를 운영했다.

이를 위해 참가 학생들은 약 2개월 간 총 3회의 사전교육을 이수하며 문화콘텐츠를 준비했고, 전북의 세계문화유산을 알릴 수 있는 키트와 QR코드를 제작해 현지와의 활발한 교류를 이끌었다.

군산교육지원청 역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대만 석강국민중학교를 방문해 중학교 3학년 학생 35명(1차)이 한국문화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사전교육을 통해 대만의 역사·문화 이해

는 물론 한국문화 소개를 위한 콘텐츠를 준비하며 국제교류 역량을 길렀다.

이어 전주교육지원청은 싱가포르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 전통놀이알리기를 위해 관련 영상 및 현지 배포용 팸플릿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우리 문화 알림 활동을 내실있게 준비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 학생들이 세계무대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소통력을 키우는 연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홍콩국제관광박람회, 전주 관광 매력 알린다

전북자치도 공동홍보관 운영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전북의 매력을 알렸다.

전주시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홍콩 국제관광전(ITE HONG KONG 2025)’에 참가해 전북특별자치도 공동홍보관을 운영했다.

홍콩 국제관광전은 지난해 기준으로 67개국 515개 바이어와 7만여 명의 참가객이 방문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관광박람회 중 하나이다.

전주시는 전북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공동 마케팅의 중심축으로서, 현지 여행업계와 일반 소비자(FTT)를 대상으로 전북 연계 관광상품을 집중 홍보했다.



전주시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홍콩 국제관광전(ITE HONG KONG 2025)’에 참가해 전북특별자치도 공동 홍보관을 운영했다 <사진=전주시>

특히 전주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은 박람회 기간 관광 정보 상담과 SNS 이벤트, ‘전북 여행지도 퍼즐 맞추기’와 ‘여행

초대장 쓰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방문객의 발길을 붙잡았다.

또한 14일에는 주홍콩한국문화원과

협업해 현지 소비자 100여 명을 초청해 전북 관광홍보 행사도 전개했다.

이 행사에서는 전북 관광설명회와 함께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 쿠김, 래스, 전통 한지공예 체험(부채·접반·침 만들기 등)도 다채롭게 펼쳐졌다.

전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전북 관광의 진면목을 소개하고, 관광 거점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홍콩 관광전 참가를 계기로 전북, 그리고 전주의 다채로운 관광 자원이 세계무대에 더욱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전북교육 방향 모색…제3회 전북교육포럼

24일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교육감·출마·하마평 4인 참여

전북교육의 미래와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제3회 전북교육포럼’이 오는 24일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교육을 통한 전북 각 지역의 발전 방향’을 대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북 교육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미래교육의 비전을 함께 그리는 자리다. 특히 교사들과 교육의 역할, 지역교육과 지자체의 관계, 교사 정치기본권 및 학력 신장 등에 중점을 둔다.

특히 전북교육감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윤태 우석대 교수와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참여한다.

이날 포럼에는 총 4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첫 번째 주제는 ‘결코 가뭄지 않은 교사 그 이름’으로 김윤태 우석대학

교 인지과학연구소장(사범대학장)이 발표하고 정광필 서울시 50+ 인생학교 교장(전 이우학교 교장)이 토론한다.

두 번째 주제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완주교육력 제고 방안’이며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가 발표하고 임정엽 국민주권전국회의전북본부 상임대표(전 완주군수)가 토론을 맡는다.

세 번째 주제는 ‘아이들은 지도를 넘는다, 교육이 그 길을 열어줘야 한다’로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이 발제하고 이도영 교사크리에이티브의 이사(원광고 교사)가 토론한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이 어떻게 전북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까?’로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 발표하고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이 토론을 맡는다.

/최성민 기자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출토 토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출토 청동거울

사진으로 만나는 가야고분군 특별사진전 ‘동행(同行)’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주년을 기념해 특별사진전 ‘동행’을 지난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 개최하고 있다.

사진전 ‘동행’은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함께 등재된 가야고분군 7개 지역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남원), 지산동 고분군(고령), 대성동 고분군(김해), 말이산 고분군(함안), 옥전 고분군(합천), 송학동 고분군(고성), 교동·송현동 고분군(창녕)의 역사적 교류와 문화적 화합을 상징하는 이름이다.

가야고분군은 2023년 9월 2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식 등재됐다.

이번 전시는 고대 가야의 문화적 독자

성과 지역 간 협력을 조명하고, 등재 유산을 보유한 영·호남 지자체 간 상생과 동반 발전을 위한 상징적 기획으로 가야고분군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이 마련했다.

전시 작품들은 고고학적으로 가치 있는 가야 고분군의 풍경을 생생하게 담아내며, 가야문화권의 다양성과 통합성을 대중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는 전북을 시작으로 경남과 경북 일원으로 순회 전시 예정으로, 이후 경상남도 서부청사(6.23~7.4), 경남 합천군청(8.4~8.14), 경북 고령군청(9.1~12월) 등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2025 교육가족 공모전 72편 수상작 선정·시상

동시 224편 등 총 402편 접수 전주화정초 이루미 동시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 교육가족 공모전’ 수상작 72편을 선정하고, 지난 13일 2층 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5월 7일부터 19일까지 ‘전북교육 2025년 10대 핵심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교육가족 공모전에는 총 402편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동시 224편 △사진 86편 △숏폼영상 19편 △만화(웹툰) 71편 등 총 402편이며, 그중 심사를 통해 72

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각 분야 대상은 △동시 ‘별처럼 빛나는 우리 이야기’(전주화정초 4학년 이루미) △사진 ‘색이 다른 날개로 함께 날다’(변암초동화분교장 교사 김경수) △숏폼영상 ‘그땐 물랐지 선생님이 그렇게 노력하는 줄’(군산신흥초 교사 구서준) △만화(웹툰)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무얼할까’(영선중 3학년 최유빈)가 각각 차지했다.

기타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도교육청 누리집(www.jb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성민 기자

도교육청, 학생안전사고 예방·대응체계 전면 정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강화 등의 종합적 조치를 담은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 각급 학교 및 기관에 안내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학교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학교 내 사고 예방 및 즉각적인 대응,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먼저 사고 유형별로 주관 부서를 명확히 지정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했다.

예를 들면 △자연재난·화재·교통안

전·산업재해 등의 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과 △직업계고 실현·실습 사고는 창의인재교육과 △체육 및 음악 활동 관련 사고는 문예체건강과가 담당하는 것으로 체계화했다.

아울러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수상 안전 교육,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시행한다.

또한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24시간 보고 지연 없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고 체계도 정비했다.

/최성민 기자

JBT

전북타임스신문

제13회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자연사랑·자연보호 그림그리기 대회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북타임스신문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사랑·자연보호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공모 기한: 2025년 5월 27일(화)~6월 20일(금)

▶참가 대상: 전북자치도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작품 주제: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와 관련된 모든 내용

▶공모 부분: 그림(만화 포함)

▶용지 구격: 8절지 크기(B4 용지)

▶접수 방법: 우편 및 방문(학교별 단체 및 개별 접수)

▶접수처: 우)54990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5층

문의 (063)282-9601, 9604 / jbn8800@daum.net

▶입상자 발표: 2025년 7월 11일(금)

▶입상자 시상: 2025년 9월 13일(토)

♣ 시상 내역 ♣

대상(3명)=전북자치도교육감상·전북자치도지사상·전북자치도의회의장

최우수상(4명)=전주시장상(2명)·전주시의회의장(2명)

우수상(20명)=(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장상 / 장려상(50명)=전북타임스신문 대표이사상 / 특별상(3명)=국회의원상

“인사 청탁 안돼요”

익산시, 3차 청렴주의보 발령

익산시는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인사 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인사 청탁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인사 청탁 금지 조항 △부정청탁 금지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전 직원에게 안내해 인사 관련 부패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익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비정상적 관행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관광명소 담은 트레블스냅 사진으로 관광객 유혹

정읍시가 인물과 풍경을 감각적으로 담은 ‘트레블스냅’을 통해 감성 가득한 관광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과 5월 두 달간 봄 풍경이 유독 아름다운 지역 명소 10곳을 선정해 인물 중심의 트레블스냅 촬영을 완료했다.

이번에 담긴 장소는 월영습지, 정읍사문화공원, 한국가요촌 달하, 내장산 우화정과 울티솔, 고택문화체험관, 김명관 고택, 내장산 용굴과 케이볼카, 내장산 조각공원 등이다. 선정 기준은 경관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역사성, 스토리텔링 요소, 대중적 인지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번 트레블스냅은 단순한 풍경 중심이 아닌 인물과 체험을 함께 담아 각 명소의 매력을 감각적으로 전달한다.

시 관계자는 “트레블스냅은 풍경을 배경으로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웃음, 또는 혼자만의 차분한 시간을 표현해 관광객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콘텐츠”라며 “여름과 겨울 시즌에도 추가로 제작을 이어가 지역관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8억 7,000만 원 투입 벼·논농 병해충 방제 총력

익산시가 벼·논농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총사업비 8억 7,000만 원을 투입해 ‘벼 및 논농 병해충 종합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벼 재배 농가에는 ha당 5만 원, 논농 재배 농가에는 ha당 7만 원 상당의 방제 약제 교환권을 문자로 발급한다. 발급된 교환권은 농업인이 희망하는 지역 농협이나 농약사에서 방제 약제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은 살균제와 살충제 각각 40여 종 중에서 가격과 효과를 고려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살균제는 벼의 경우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세균병알마름병 △깨씨무늬병, 논농은 △불마름병 △들불병 △탄저병 △노균병 △자주무늬병 △세균집무늬병 등의 병해를 예방한다. 살충제는 밀구류, 나방류, 노린재류, 응애류, 나방류, 노린재류 등 주요 해충 방제에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이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인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해서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대한민국 대표 ‘안전 도시’

4년 연속재난관리평가 ‘최우수’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목표

익산시가 4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며, 대한민국 재난안전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지난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다시 한번 전북 1위 자리를 지켜냈다.

이는 2022년 전국 최우수(1위) 수상에 이어 2023~2025년 3년 연속 전북 1위를 수성한 탁월한 성과다. 익산시가 재난 대응 역량과 시민 안전 관리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아울러 시는 2023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우수기관(전국 1위), 지난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우수기관으로도 선

정되는 등 사계절 빈틈없는 재난 대응 체계 구축으로 전국 지자체들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전국 평균을 웃도는 성과…기관장 리더십 빛났다

익산시는 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평가 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고른 성과를 내며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기관장인 정현을 시장의 재난상황 대응 역량이 주요 성공 요인으로 꼽혔다.

3선 관록의 정현을 익산시장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현장 중심 리더십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 민·관이 함께 만든 ‘안전 익산’…자율방재단 활약도 눈길

이번 성과 뒤에는 민·관이 함께 쌓아 올린 재난 대응 협력 체계도 큰 몫을 했

다. 339명으로 이뤄진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단장 정영미)은 평소 안전 캠페인, 취약지역 점검, 재난 복구활동 등에서 언제 어디서든 뛰는 현장의 주역이다.

올해는 방재협회 주관 지역자율방재사 자격시험에서도 36명이 합격하며 전문성을 한층 높였고, 2023~2024년 2년 연속 행정안전부 표창과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대응하고 있다”며 “만사불여 튼튼의 마음으로 앞으로 도 빈틈없는 재난 대응 체계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이 안심하며 사는 익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우수사례 선정

조은성 주무관 공로상

군산시가 산림청이 주관한 ‘2025년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및 우수사례’ 세미나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 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조은성 주무관이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군산시가 재선충병의 반복 발생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추진한 대규모 수종전환 방제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그간 군산시는 총 198ha 면적에 걸쳐 93,119본의 감염 및 우려목을 제거하며, 기존의 단독 벌채방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방제 전략인 수종전환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약 56억 원의 방제예산을 대폭 절감했고, 지속 가능한 산림 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가 ‘2025년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및 우수사례’ 세미나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 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조은성 주무관이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사진=군산시>

났다. 특히, 단기적인 방제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장기적·체계적인 산림 관리 전략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런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군산시의

수종전환 방제는 병해충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지역 산림의 건강성을 고려한 점에서 모범사례로 손꼽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함께 키우는 정읍 농업”…로컬협동조합 출범

지난 12일 발대식 개최

“농민·소비자 연결 플랫폼”

정읍 농민들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 지난 12일 ‘정읍로컬협동조합’ 발대식을 통해 힘차게 시작했다.

이번 발대식은 단순한 조직 출범을 넘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로 치러졌다. 현장에는 이학수 시장과 박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합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협동조합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에서는 정읍로컬협동조합의 설립 배경과 준비 과정을 소개하고, 조합원 선언문을 낭독하며 공동의 비전과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조합 운영 방향과 지역 농업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학수 시장은 축사를 통해 “정읍로컬협동조합의 출범은 정읍 농업이 나아갈 미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

라며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든든한 플랫폼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새만금구역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역량 포럼

항만 통합 운영에 따른

대응 체계 일원화 필요성 제기

군산시가 지난 13일 ‘새만금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행정 주체의 요건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포럼은 군산시가 주관하고 국가위기관리학회와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했으며, 군산시·재난 안전 전문가·학계 및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주제발표를 진행한 방창훈 교수(경남대학교)와 류상일 교수(동의대학교)는 새만금의 지리적 특성상 자연·사회재난의 복합 위험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두 교수는 이에 따라 단순한 관할권 논쟁이 아닌 국가 재난 대응 체계에 있어서 고도화된 재난 대응 역량을 갖춘 주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항 신항이 군산항과 통합 운영될 예정이며, 두 항만이 물류·기능·배후 권역 측면에서 하나의 항만 체계로 작동하게 된다는 점이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일체화된 구조에서 재난 대응 주체가 이원화되면 현장

혼선과 지휘 공백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증된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단일 대응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항만 내 사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중앙정부 소속 기관에서 이뤄지더라도 유류·화학·화재·교통통제·의료지원 등 실제 재난 현장 대응의 핵심은 현장 기반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항만과 산업단지가 연계된 새만금항 신항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검증된 대응 경험을 가진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복지기동대, 주거 취약계층 신속히 돕는다

가구당 4백만원 내 개선 지원

익산시가 주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익산형 주거복지를 가동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에 나섰다.

시는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회와 협력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익산복지기동대 사업’을 운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기존 주거복지 사업은 대상자 선정과 지원 절차에 수일 이상이 소요되고, 지원 금액도 제한적이어서 긴급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읍면동 단위로 ‘익산복지기동대’를 구성해 신속한 대상자 발굴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마련

했다. 이번 사업은 익산시 홍보대사인 프로골퍼 박현경 선수가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사랑의 열매에 지정 기탁한 성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총사업비 4,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익산복지기동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회화를 거쳐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주거 환경 및 편의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이른 장마 대비, 총력 대응해야”

상황별 모의훈련-매뉴얼 점검

군산시가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된 장마에 대비해 침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예방 점검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최근 기상청의 장마 예보에 따르면 올해는 장마가 평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재해 관련 부서 및 읍면동에 △도심 저지대 및 배수 취약지역 사전 점검 △하수도·빗물펌프장 등 기반 시설 정비 △해해 위험지역 순찰 강화 △긴급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지시했다.

특히 강 시장은 “실제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력과 정보 전달이 생명선이 되는 만큼, 문자나 마을 방송, 순찰대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산사태 등 관련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상황별 모의훈련과 매뉴얼 점검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군산시는 이미 2월 초부터 주요 하천 및 소하천 제방 상태, 배수로 정비 상황 등을 일제히 점검해왔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주택가 골목 빗물받이 정비도 진행하고 있다.

강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단기간 강우량이 늘어나는 만큼, 과거의 경험에 기대선 안 된다”라며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만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생활밀착 현장 속으로

주차장·텃밭·황토길 점검

이학수 정읍시장이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잇따라 방문하며 주차장, 공동체텃밭, 황토길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읍형 현장행정에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초산동 임시주차장을 비롯해 시가동 공영주차장, 공동체텃밭 추가 조성 예정지, 황토길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주요 공간을 차례로 점검하며 각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먼저 초산동 공영주차장에서는 이번 도로 불법주차 문제를 언급하며 “계고장 부차, 경교문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을 도와 협의해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산동주민센터 인근 임시공영주차장에선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하

고, 임시시설이라도 철저한 관리체계를 갖추라”며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시가동 공영주차장과 9통 주차장에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만큼 토지매입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며 “9통 주차장은 유료화를 전제로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하라”고 밝혔다.

공동체텃밭 예정지에 대해서는 부지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리고 “일반자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하고, 접근성 좋은 대체 부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황토길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이용객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진출입 도로를 정비하라”며, 세심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질적 불편 해소에 집중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미장상가나운금빛 골목형상점가 지정

군산시가 경기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미장상가’와 ‘나운금빛’ 두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미장상가(미장휴먼시아아파트 옆·미장아이파크 옆) 점포 50개소 △나운금빛(나운현대4차아파트·금호타운나운2단지 사이) 점포 96개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남원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선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 확보 청년스마트팜미꾸라지양식 지원 교육특구글로벌컬 등 격차 해소

남원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남원시는 인구감소 원인분석 결과 일자리와 교육문제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여 지난해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북 시군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 160억 원을 확보하였다.

남원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점사

업으로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중이다. 현재 바이오 융합센터 실시설계중으로 오는 11월 공사를 착공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소재 개발 및 연구개발(R&D) 분야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고용 창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생산, 가공, 유통, R&D를 집적화한 미래 농업 메카를 조성하고, ‘청년 스마트 미꾸라지양식 창업사관학교 사업’을 통해 국내 유일 토종 미꾸라지 양식단지를 활용하여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남원 인재학당’은 스마트 강의를, 그룹 스터디실 등을 갖춘 공공형 학원으로 조성되며,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더불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과 ‘글로벌컬 30(전북대 남원글로벌 캠퍼스 설립)’ 선정을 통해 지역 고등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지리산권 교육 거점 도시를 넘어 글로벌 교육 거점 도시로의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맞춤형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사업’은 87호 규모의 다양한 주택 공급과 생활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기반 시설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호국보훈의 달에 새 회관 ‘첫 삽’

총사업비 25억 보훈회관 신축 내년 준공 7개 단체 입주 지원

순창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훈회관 신축 사업이 드디어 이달 착공에 들어간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지역 보훈단체들의 통합 공간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새 보훈회관은 순창읍 순화리 464-4번지, 과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던 부지(총면적 816㎡)에 들어선다. 총사업비 25억 원이 투입되며, 국비와 도비 각 5억 원, 군비 15억 원이 포함됐다.

신축 회관은 연면적 486㎡,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내부에는 7개 보훈단체의 개별 사무공간은 물론 회의실과 회원 휴게공간 등 다목적 시설이 포함된다.

현재 순창군 보훈회관은 순창공용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위치한 1984년 준공 건물로,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상이군경회와 전물군경미망인회 단 두 곳만 입주해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5개 보훈단체는 향군회관 1층을 임차해 사용하는 상황으로, 공간 통합된 회관 마련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최영일 군수는 민선 8기 공약으로 보훈회관 신축을 직접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여러 차례 보훈단체

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지 선정과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2023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2024년에는 신축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5년 국가보훈부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군은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하고, 7개 보훈단체가 모두 새 회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시설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예우와 실질적 지원이 병행되는 보훈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지리산 활력타운’ 기반공사 착수

귀촌·이주 거점 주거플랫폼 87세대 복합 인프라 구축

남원시가 추진 중인 전략사업 ‘지리산 활력타운’이 기반시설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각종 행정절차와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올해 하반기부터 부지 정리,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리산 활력타운은 전북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일원 약 56,710㎡ 부지에 2023년 7개 중앙부처가 공동 주관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며, 남원시 특유의 고원지형과 지리산 자락의 청정 자연환경을 살려, 귀촌·이주 수요에 대응하는 주거 기반과 정주 인프라를 갖춘 거점으로 조성 중이다.



남원시 ‘지리산 활력타운’의 기반시설 공사가 착수된다.

<사진=남원시>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필지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 총 87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되며,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 실내 체육시설, 게스트하우스, 근린공원 등 다양한 생

활 인프라도 함께 들어설 계획이다.시는 2026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기반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아동문화 혜택 확대

문화예술 지원 업무협약 어린이공연 기획·운영·홍보

완주군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아동·청소년의 문화적 혜택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지난 13일 양 기관은 완주군 전략회의실에서 아동친화도시 문화지원사업 ‘소리문화와 함께하는 완주’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완주군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아동·청소년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어린이 공연을 기획 및 운영하고, 완주군은 문화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며 관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



완주군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13일 아동친화도시 문화지원사업 ‘소리문화와 함께하는 완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완주군>

획이다.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는 “완주군과의 협력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소중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

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아이들이 더욱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의회가 12일 반부패 법령 이해제고 교육 직후 청렴서약식과 청렴퍼포먼스를 행하고 있다.

<사진=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 청렴·공정 의정활동 다짐

**반부패 교육 후 청렴서약식
풍선터뜨리기 퍼포먼스 진행**

완주군의회(의장 유익식)가 지난 12일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실시한 반부패 법령 이해제고 교육 직후 청렴서약식과 청렴퍼포먼스를 갖고,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서약식에서는 유익식 의장을 비롯한 완주군의회 의원 전원과 직원을 대표해 신규 채용된 직원 등이 참석했다.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금품 및 향응, 편의제공 배제 ▲부당한 압력 행사 금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청렴서약식에서는 부패 요소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폭언, 갑질, 부당지시, 특혜 등의 반부패 문구가 적힌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하며, 청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유익식 의장은 “이번 청렴서약식을 계기로 의원 모두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렴한 공직환경 조성을 위해 스스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어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한국전통문화대와 도자발전 협약 체결

문화유산대학 학술조사 등 국제도예캠프·시민교육 교류

남원시는 지난 13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대학(학장 최성재)과 도자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양 기관이 도자관련 전시, 교육, 학술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문화유산대학의 남원국제도예캠프 참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재학생들과 남원시민도예대학 수강생들의 교류, 남

원도자전시관 건립 및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한편, 남원시는 민선 8기 공약산업의 일환으로 합파우 유원지 내에 도자 전시관, 남원현대울림목공예관, 키즈아트랜드 등을 조성하는 합파우 아트밸리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의 유서 깊은 도예문화를 기반으로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문화유산대학과 다방면으로 협업, 도자문화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공무원 대상 Chat-GPT 활용 교육

AI 활용 보고서 작성 역량강화 실무 즉각 적용 업무 효율 제고

순창군이 올해 지자체 합동평가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ChatGPT 활용 보고서 작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합동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총 3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회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ChatGPT의 기본 개념 이해 △활용 방법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등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행정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생성형 AI인 ChatGPT를 공공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보고서 품질 향상과 업무 효율 제고를 동시에 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합동평가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담당 공무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평가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교육이 디지털 행정으로의 전환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市場속으로 市長이 간다’

인월 전통시장 방문 상인 격려 애로 청취 실질적 지원책 모색

남원시장은 지난 13일 인월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갖는 ‘市場속으로 市長이 간다’를 추진했다.

이날 방문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인월시장을 찾은 시민과 현장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인월시장의 여러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인월시장 상인들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고산면 화재 피해 가정 이랜드복지재단 SOS 위기 선정

완주군 고산면이 이랜드복지재단 SOS 위기 사업에 선정돼 화재 피해 가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위기 사업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 가정들에 긴급한 지원을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립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해당 가정은 주거비 및 생계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받게 됐다.

유지숙 고산면장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이번 지원이 작게나마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산면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 곁에서 함께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산면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 가정의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본격 단속

순창군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순창경찰서와 함께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창군 재무과·경제교통과와 순창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6월 넷째 주 중 관내 주요 도로에서 불시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 2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괄 발송했고, 3월부터는 자체적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아울러,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총 144건의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이와 같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체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2위)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등 체납이 있는 군민께서는 자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는 물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천 권 읽기’ 아이들 또래 친구 독서 돕는다

완주군이 ‘취학 전 천 권 읽기’ 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천사 단원 발대식 & 천 권 가약식’을 성황리에 열었다.

‘천사’는 천 권 달성 꼬마 사서라는 의미로 10명의 어린이들이 천사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들은 또래 친구들의 독서활동을 돕는 활동을 벌인다.

지난 13일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익식 완주군의회의장을 비롯해 유아, 교사, 양육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책으로 함께 성장하는 독서공동체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취학 전 천 권 읽기’ 사업은 완주군 대표 유아 독서 진흥 정책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총 1,000권의 책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고,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또한 깊어지며 가정 내 독서문화가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돕고 있다.

발대식에서는 천 권 읽기를 실천 중인 아이들과 천 권 읽기를 달성한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서로의 독서 경험을 공유했다.

발대식과 함께 진행된 ‘천 권 가약식’에서는 올해 새롭게 ‘취학 전 천 권 읽기’ 사업에 참여하는 유아교육기관과 어린이들이 참여해 천 권 읽기를 꾸준히 실천할 것을 함께 약속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오늘 천사 단원으로 첫걸음을 뗀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과 만나고, 그 가치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익산 동산동지사협, '어르신 봄날사진관' 운영

익산시 동산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심현무)와 함께 특화사업 '어르신 봄날사진관'을 본격 운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어르신 봄날사진관은 지역 저소득 고령층에게 맞춤형 이·미용 서비스와 사진 촬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20명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동산동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이·미용 전문가 19명과 자녀 10명으로 구성된 가족봉사단 '우리네봉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옥구읍, 신선수산 등 희망나눔 성공품 기탁 잇따라

군산시 옥구읍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믿음의 교회(담임목사 장민기)와 신선수산(대표 박광석)이 지난 13일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는 이웃돕기 성금과 성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믿음의 교회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30만 원을, 신선수산은 대하 100kg(200만 원 상당)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함께 기탁된 대하 100kg는 관내 경로당과 아동복지시설 등에 전달되어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활용됐다.

/군산=지승길 기자

김제 망해사, 지역사랑 담은 네번째 성금 기탁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국가자연유산 명승 김제 망해사(주지 우림스님)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현금 2,379,610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성금은 망해사 신도들과 방문객들이 망해사의바람의 종'을 치며 낸 시주금으로 마련됐으며, 작년에 이어 네 번째 기탁이다.

망해사 주지 우림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서로 돕고 함께하는 실천적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제=윤봉기 기자

익산경찰 망성파출소, 길 잃은 치매 노인 무사 인계

경찰마을공조로 신원 확인

익산경찰서 망성파출소가 23번 국도(익산~강경)를 배회하던 신원 미상 중증 치매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에게 인계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어르신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소지품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파출소는 과학수사반, 여성 청소년계, 면 행정복지센터, 이장 등과 공조해 심지지문 채취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사건은 지난 12일 오전 7시경 시

작됐다. "치매 노인이 도로를 걷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자 망성파출소는 즉시 출동했다.

그러나 대화가 불가능해 복지시설 입소 여부를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고, 이장단에 사진을 배포하며 인적 확인에 나섰다. 단서가 드러나지 않자 과학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심지지문까지 채취했다.

7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신원과 주소지가 확인됐다. 경찰은 어르신을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소지까지 직접 동행해 무사히 인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가입

1억 원 이상 기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지난 1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가 인증하는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나눔명문기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기업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으로, 사랑의열매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3년 이내 기부 약정 시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NH농협은행 전북본부를 포함해 18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김성훈 본부장은 "지역과 상생하는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나눔명문기업으로 선정된 것이 무척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 어려운 이웃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전북지역에 따뜻한 나눔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라북도병원회, '제52차 학술세미나' 개최

전라북도병원회(회장 신총식 예수병원장)는 지난 12일 그랜드힐스톤 그레이스홀에서 제52차 전라북도병원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술세미나는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청 복지여성보건의국장, 정경호 전북특별자치도도의사회장, 노홍인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신총식 전라북도병원회장 등 회원 및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에서는 내빈 소개, 인사, 전

라북도병원회 운영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2부에서는 병원회 구성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학술강의로 예수병원 순환기내과 김진화 과장의 '부정맥 치료의 최신지견', DK솔루션 김요안 이사의 '생성형 AI 시대, 의료기관의 디지털 혁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등 전라북도 부정맥 치료의 현재 수준과 스마트 병원의 구현 사례 효과 중심으로 학술 세미나를 마쳤다.

/김영태 기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 정읍협의회, 달걀 기탁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정읍지구협의회(회장 황명현)가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250만원 상당의 친환경 달걀 200편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정읍지구협의회는 지난 12일 장명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달걀을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달걀은 장명동과 수성동, 시기동의 취약계층 가정과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나눔은 단순한 기부를 넘

어 지역의 식생활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특히 달걀은 영양가득한 식재료로서 노인과 아동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명현 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마음에 심표를"... 완주군 민원 담당자 견학

완주군 민원 업무 담당자들이 전남 담양군에서 견학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재충전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담당자들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트래킹 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직무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에 관한 특강과 커피를 활용한 인문학 강의, 커피 드립백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지친 일상에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김명곤 기자



고창 공음면 새마을부녀회, 정성 담은 반찬 경로당 전달

고창군 공음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김복순)가 지난 12일 공음면 주민행복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관내 51개소 경로당에 김치, 제육볶음 등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지난 제22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서 새마을부녀회가 운영한 먹거리 부스 수익금 100만원과 새마을부녀회장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 박관식 참나무정 농약단장이 기부한 배추로 마련됐다.

/고창=백종규 기자

어린이들 안전 위한 봉사활동 '전북녹색어머니연합회' 출범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13일 '2025년 전북녹색어머니연합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김철문전북경찰청장장과 전북녹색어머니연합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향후 1년간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해 성실히 헌신해 온 전임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영태 기자

비오는 날 보행 안전 수칙

◆무단횡단 절대 금지

비가오는 날에는 운전자 시야가 좁아 보행자가 잘보아지 않아요
안전하게 횡단보도로 건너요!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피요!

차량의 사각지대에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반드시 차가 오는 방향을 보며 건너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외출을 삼가해 주세요!

밝은 색 옷, 밝은색 우산을 착용해 주세요!

〈一事一言〉



K-이니셔티브의 성공을 바라는 단상(2)

이문기

세종대 국제학부 교수

이 두 이론 중 초국가적 근접성 이론의 경우 한국 민족의 특수성 보다는 세계적 보편성에 더 주목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류의 성공과 관련하여 한국 민족 고유의 특성과 정체성을 더 잘 반영하는 개념은 문화혼종성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 및 한국문화의 이런 특성은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민족성으로부터 연유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한반도 국가는 예나 지금이나 중간지대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근대 이전 시기에는 주로 북방 유목민족과 중화문화 사이에서, 그리고 근대 이후에는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 사이의 중간지대에 위치했다. 이런 중간지대 성격으로 인해 한반도 국가는 역사적으로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정체성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나는 지정학적 충돌의 정체성이고, 다른 하나는 지리문화적 융합의 정체성이다. 전자가 안보 문제와 직결된 위기의 측면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문화적 역동성을 강조한다. 주변 양쪽의 이질적인 세력이 충돌할 때 한반도는 삼각구도의 위기 구조에 빠져들고, 우리 민족은 생존을 위해 갈날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고도의 긴장감과 균형 감각을 요구 받는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 유지되는 치열한 생존본능이 독특한 융합문화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이질적

인 문화와 세계관이 충돌할 때 내적으로 극심한 갈등과 균열에 빠져들기도 하지만, 또한 외부로부터 유입된 이질적 문화 요소들과 한국적 고유성이 뒤섞이면서 새로운 혼종문화를 창조하기도 한다. 고 이어령 선생은 문화지리적(geoculture)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전통문화는 북방 유목문화와 남방 농경문화가 뒤섞여 형성된 것이며, 근대 이후에는 대륙 문화(혹은 동양문화)와 해양 문화(혹은 서양문화)가 뒤섞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한국인은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문화 요소들을 수용할 때 양자택일적이기보다는 포용과 융합의 기호체계에서 양단불락(兩端不落)의 가치관과 문화양식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민족은 타문화와의 관계에서 편협한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또한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는 이웃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강한 자문화 중심주의와 대비되는 한국 민족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류의 성공은 우리 민족성에 깊이 뿌리박힌 문화융합의 정체성이 폭발적으로 활성화하면서 얻은 성취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지금에야 한류가 융성하고 있는가? 한반도가 중간지대 국가로서 갖는 융합문화 정체성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데 말이다. 그것은 최근 약 150년 동안의 한국 근현대사가 우리 역사상 중

간지대 국가로서 받는 압박과 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 이래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국 근현대사는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생존 압박에 시달려 온 시기였고, 서로 다른 이념과 문화가 끊임없이 충돌해 온 문화격변의 시대였다. 그 발전이 한편으로는 삼각관계의 함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학적 위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혼종문화가 탄생하는 문화적 역동성이다. 한류의 성공은 21세기 들어와 후자의 측면, 즉 중간지대 국가의 문화융합 정체성이 폭발적으로 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 분야에서 먼저 개척한 글로벌 주도권을 여타 분야에서 이어받고, 국가적 차원에서 분야 간 협력을 실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상이 K-이니셔티브 정책이다. 그 성공을 위해서는 중간지대 국가 한국의 융합문화 정체성이 갖는 강점을 여타의 분야로 파급·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각종 산업 분야를 비롯해서 외교, 관광, 교육, 학술 등 많은 분야에서 전개되는 K-시리즈 열기는 이런 열망의 반영이다.

그런데 접두어 'K'를 관성이나 유행에 따라 붙이고 남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개념의 남용은 자칫 그 본래의 가치를 퇴색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접두어 'K'는 한류의 성공으로부터 얻은 영감을 각자의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창조하려는 '창발성'의 징

표'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세계질서는 패권의 공백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를 설명할 때 '궤위의 시대' 혹은 'G0 시대'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한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옥중수고〉에서 언급했다는 “낡은 것은 갖는데 새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시대다.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기대는 곧 새로운 문명을 향한 갈망이라는 점에서 궤위의 시대는 문명전환의 시대이기도 하다.

이런 전환기에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중간지대 국가의 융합정체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도래한 듯하다. 식민지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다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한국은 여러 방면에서 중간지대 국가에 해당한다. 동양과 서양, 글로벌사우스와 글로벌노스, 그리고 근대문명사의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역량이 'K-이니셔티브 구상'으로 수렴되어 인류 공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새만금 신항, 크루즈 관광 전진기지로 삼자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신항과 부안 격포항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크루즈관광 유치에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는 전북의 산업 지형을 전환시키고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내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이 그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도는 이를 기반으로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유치를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열린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전북 크루즈산업의 본격적인 시동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도와 시·군, 새만금개발청, 해양수산청,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50여 명이 참여해 전략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한 이 자리에서는 크루즈산업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과제들이 다뤄졌다. 수용태세 점검, 인센티브 방안,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기획 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행력을 갖춘 전략 수립의 핵심이다.

사실 전북은 그간 크루즈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쳐왔다. 지난해 11월 새만금청과 군산해수청을 비롯한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담 TF팀을 가동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정책 추진의 제도적 틀도 갖췄다. 지난 주말 부산에서 열린 크루즈 워크숍에 전북도가 참여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만금 크루즈 유치 계획을 홍보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히 새로운 관광

자원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크루즈관광은 평균 체류 시간과 1인당 소비가 높고, 항만 인근 지역뿐 아니라 광역권 전반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미친다. 전북의 경우 부안 격포, 고창 선운사,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문화유산 등 역사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크루즈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여행 목적지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 특산품, 음식, 전통문화 체험 등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는 전북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하지만 가능성과 계획만으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국제 크루즈 유치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 선박 입항과 하선, 출입국 심사, 검역 절차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터미널 시설, 관광객을 수용할 교통 및 숙박 인프라의 확보는 필수 과제다.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략이 아무리 정교해도 경쟁 항만에 밀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북도는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실천 가능한 로드맵으로 구체화해야 하며 예산 확보와 관련 법·제도 정비, 민관 협력 확대 등 정책적 뒷받침도 병행되어야 한다. 새만금 신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크루즈 관광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준비가 얼마나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가에 달려 있다. 크루즈관광은 단기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시야로 접근해야 하며 전북도가 이를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기대한다.



오늘의시

보리밭 / 안도현

이 땅에 아직
보리밭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내릴 수 없는
깃발이 있다는 뜻이다
이 땅에 아직
보리밭이 있다는 것은
망투기꾼 독점재벌에게는
도저히
빼앗길 수 없는
한 뼨의 분노가
있다는 뜻이다
이 땅에 아직
보리밭이 있다는 것은
밟아도 밟아도

되살아나는 희망
우리가 청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땅에 아직
보리밭이 있다는 것은
적에 대한 증오가
이렇듯 푸르고
동지에 대한 사랑이
이만큼 싱싱하다는 뜻이다
이 땅에 아직
보리밭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아직
보리피리를 찬란하게
불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시인 약력 : 1961년 경북 예천 출생. 대구 대건고를 졸업하고 원광대와 단국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낙동강'이 당선되면서 데뷔했고 1985년 이리중학교 재직시절 전교조에 참여했다가 해임됐다. 1996년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 1998년 소월 시 문학상, 2000년 원광문학상, 2002년 노작문학상을 수상했다. 우석대 문창과 교수를 하면서 작가 활동을 병행했다. 2019년 단국대 천안캠퍼스로 자리를 옮겼다. 2020년에는 전주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독자광장

감정을 안정시키는 독서의 힘



최근 몇 년간 필자는 책을 읽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다. 업무 특성상 다음 스के줄을 위해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우선시 하다보니 독서는 점점 뒤로 밀려나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문득, 독서가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되었다. 사고방식을 넓히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소중한 방법이 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된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스트레스와 실패, 시련 속에서 무너질 듯한 순간을 맞이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잠재해 있다.

이를 '회복탄력성'이라 한다. 회복탄력성은 단순히 강한 정신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모든 것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아내고 어려움을 통해 더욱 깊은 인생을 통찰하는 해안을 가장 효과적으로 기르는 방법은 단연 '독서'다.

삶에서 맞닥뜨리는 '타격의 격차' (어려움이 주는 충격의 차이)와 이를 극복하는 '회복의 격차' (다시 일어나는 능력의 차이)

는 결국 독서의 깊이에 따라 달라진다. 책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기른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찾고, 다시 나아갈 수 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옥중에 있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화를 이끌었고, 안데르센은 가난을 극복하고 덴마크를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다. 이들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원동력은 독서였다.

독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사고력을 확장하고, 주어진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길러준다. 깊이있는 사고와 내면의 단단함은 독서를 통해 길러진다.

이는 단기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시간 축적되어 만들어지게 된다. 희망을 키우는 유년의 독서, 도전의 길을 여는 청년의 독서, 삶을 다지는 장년의 독서, 지혜를 찾는 노년의 독서, 독서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물들인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며, 나아가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운다. 삶의 도전에 맞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독서다. 지금 가까이 책에 구애(?)하여 읽고 맛보고 이겨내는 '독서의 힘'을 경험해보자.

/정읍경찰서 112상황팀장
손주현 경감

개암사 응진전 16나한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물, 불교조각, 석조, 나한상

- 지정일 - 2000년 3월 31일

- 소재지 - 부안군 상서면 개암로 248 (감교리)



문화재열전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5.10.14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지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영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8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872-0308
발북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 010-5242-38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新산업 발굴전략으로 초격차 기술 대전환 선도

글로벌 기술경쟁 나선 김제시

김제시(정성주)가 초격차 기술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미래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본격화 했다.

시는 지난 1월 신설된 '성장전략실'을 중심으로 AI 융합기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 등 미래 핵심기술과 지역 주력산업을 연계하고 다각화하며, 체계적인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강소도시 김제 실현을 목표로 '도약(Drive) - 성장(Nurture) - 확장(Advance)'의 3단계 D.N.A. 로드맵을 수립하고 본격 실행에 착수했다.

각 단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도약(Drive) : 제도 및 정책 기반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전환 발판 마련, △성장(Nurture) : 첨단 모빌리티 및 AI 농생명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역량 강화, △확장(Advance) :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첨단산업 허브 도시로의 도약이다.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해 김제의 기술혁신과 산업 고도화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시는 기술혁신과 신산업 발굴이라는 실천적 행보를 통해, 미래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전략적 로드맵과 탄탄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인구소멸 위기의 지방 소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미래산업 도시로 우뚝 설 미래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도약(Drive) :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기반 마련

시는 특장차 산업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목표로 '2025년 특장차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다양한 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스페셜 차세대 성장 프로젝트, △전기동력기반 특장모빌리티 전문인력양성 사업, △특장차 제작기업 인증교육 △전략산업 특화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인 특장산업 고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도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첨단 특수목적기반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 및 기반구축'사업과 탄소배출 제로화 대응 전기 특장차 상용화 기술개발' 타당성 및 세부 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병행 추진 중이다.

글로벌 강소도시 실현 위한 '성장전략실' 신설 첨단 산업 기술혁신 미래 먹거리 발굴·육성 박차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전북도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국가예산 확보와 함께 대규모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지난 2월 제정된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친환경 모빌리티, AI, 드론, 자율주행, 로봇기술 등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연구개발(R&D) 촉진과 첨단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전략을 병행 추진하며,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관내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을 뒷받침할 지속 가능한 신산업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성장(Nurture) : 모빌리티 산업의 전환과 혁신을 통한 신산업 역량 강화

시는 오는 2026년을 기점으로 기존 특장차 산업의 기반 위에 친환경 동력 기술, 디지털·AI 기반 시스템, 재난안전 대

응 특화 기술을 융합해 미래형 첨단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첨단 과학기술의 선제적 도입하고, 국산화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고성능 특수목적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현장의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AI(인공지능) 기술과 고장 예지·정비 시스템, 원격작업 로봇 등 디지털 융합 기술을 적극 도입해 특수목적 모빌리티 운영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작업 현장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후위기에 따른 복합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특수목적 모빌리티 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폭우 폭설, 산불, 지반침하 등 재난 상황에 신속 대응 가능한 소형 방재 차량, 자동 제설·살수 특장차, 도로 균열 감지 및 보수 로봇 등 AI 기반의 재난 대응 생태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안전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또한, 농생명산업의 수도 김제의 강점을 바탕으로 농업 분야에서도 디지털·AI 전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AI 농생명산업 허브 조성, AI 기반 정밀 농업, AI 농기계 실증 시스템, 데이터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농산물의 첨단화와 스마트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확장(Advance) :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첨단산업도시 김제

확장단계(2028년 이후)부터 시는 특수목적 모빌리티산업과 AI 농생명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한다.

초격차 기술력 기반의 미래 첨단산업 거점도시로의 전환을 구제화하며, AI와 디지털전환 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농기계, 자동화 재배시스템, 정밀 농업 플랫

폼 등을 통해 스마트 농업 기술을 고도화하고, 친환경,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반의 고기능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나아가 IT, 에너지, 환경, 농업, 물류, 제조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된 '초산업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춘 초거대 산업클러스터로의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단지를 넘어 산업 융합과 기술 집적, 수출 기반이 결합된 미래형 첨단산업 도시로의 진화를 지향하고 있다.

AI 농생명 산업의 해외 실증사업 및 수출 연계 지원체계를 마련해 김제시 기술과 제품을 글로벌 농업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수출 전략 거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우리 시는 비상지재(非常之才)의 자세로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고, 산업 구조 전환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누구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긴밀히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대한민국 수제맥주 일번지,
군산에서 즐기는 진짜 우리 맥주!!

2025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

GUNSAN BREWS & BLUES FESTIVAL

6.20 FRI | 6.21 SAT | 6.22 SUN

한영애 밴드 | 체리필터 | 박완규 밴드

6.20 FRI ~ 6.22 SUN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일원

군산시